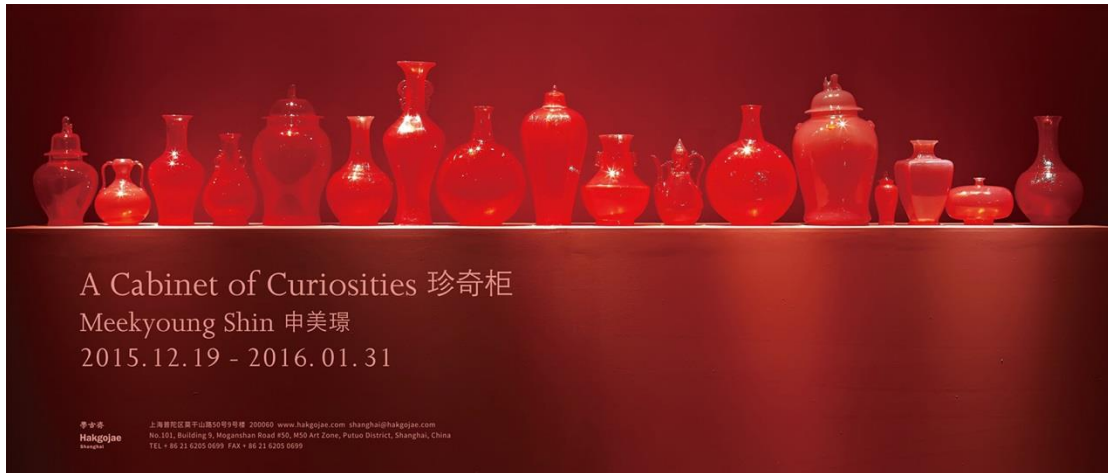


## 진기한 장식장 A Cabinet of Curiosities



전 시 명: 진기한 장식장: 신미경 개인전  
일 시: 2015년 12월 19일 - 2016년 1월 31일(44일간)  
장 소: 학교재 상하이  
작 가: 신미경  
문의 및 담당: 최수영 soo@hakgojae.com

###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 학교재상하이 폴더 > [20151219-20160131 진기한 장식장]

### 1. 전시 개요

학교재상하이는 2015년 12월 19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신미경 작가의 중국 첫 개인전 <진기한 장식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 시리즈 <트랜스레이션>, <트랜스레이션-고스트시리즈>, <풍화시리즈>, <화장실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2년간 작업한 <페인팅 시리즈>가 함께 전시되어 신미경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시와 병행하여 상하이의 5개 미술 관련 공공 화장실에서 진행되는 <화장실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와 전시를 중국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1967년 한국 청주에서 출생한 신미경은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후 90년대 중반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1998년 런던 슬라이드 스쿨 조소과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작가는 현재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신미경은 국립현대미술관,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대영박물관, 브리스틀 시 박물관과 미술관, 성곡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독일 쾰른의 미하엘-호르바흐 파운데이션, 싱가포르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대구 미술관,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베니스 팔라초 포르투니 등에서 진행된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휴스턴미술관, 영국 브리스틀 시 박물관과 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리움, 영국 예술위원회 등에 소장되어 있다.

## 2. 전시주제

### 장식장 속 진기한 것들: 신미경의 첫 중국 개인전



Painting Series, 2014-ongoing, Soap, Fragrance, frame, Dimensions variable

이번 전시 제목은 박물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기한 장식장> (Cabinet of Curiosities 혹은 Kunstkammer)이다. 현재의 박물관이 존재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진기한 물건들을 모아 장식장에 진열하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방을 이루고, 건물이 되고, 공공의 성격으로 변하며 박물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된 동명의 개인전 <진기한 장식장>은 작가의 커다란 장식장을 전시장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만큼 그의 대표 시리즈 <트랜스레이션>, <트랜스레이션-고스트시리즈>, <풍화 시리즈>, <화장실 프로젝트>와 더불어 근작 <페인팅 시리즈>까지 총망라되어 중국 미술계에서 첫 선을 보인다.

작가는 2008년 난징 트리엔날레와 베이징의 송창미술관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2013년 타이베이 현대미술관의 개인전으로 그 이름을 이어갔다. 2015년 학교재상하이 2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본토(mainland)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그의 개인전은 상하이 전체에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학교재상하이에서의 전시와 병행하여 상하이의 롱 미술관(Long Museum), 상하이 당대 예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K11, M50 예술특구, 하오 아트호텔(HOW Art Hotel)의 다섯 미술 관련 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화장실 프로젝트>의 새로운 버전이 진행된다.

### 예술품에 대한 재정의

2004년부터 신미경은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공 화장실에 서양 고전 조각상 혹은 동양의 불상 등을 비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비누를 사용하게 한다. 사람들이 비누를 열렬히 사용하면 할수록 조각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형상은 녹아내리고, 뭉개지고, 떨어져 나간다. 형상의 첫 모습만 작가가 제시할 뿐 전적으로 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의해 완성되는 이 프로젝트는 "작품" 혹은 "미술품"이 "유물"화 되어

가는 과정의 반대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소멸될 수도 있는 “예술품”을 제시하고 그 정의와 해석에 질문을 던진다.

20세기 독일의 저명한 실존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품과 일상용품의 차이란 일상용품은 소모하기 위한 것이고, 예술품은 사용하더라도 절대 소모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신미경은 <화장실 프로젝트>에서 편의시설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비누 조각상을 자유롭게 만지게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조각들은 미술관의 전시장으로 들어온 뒤에는 만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작가는 이것에 착안하여 “만약 예술품의 재질이 일상에서 소모되는 생활용품이라면, 이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소모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Toilet Project, 2004-ongoing, Soap, fragrance, Dimensions variable

### 번역과 해석



Translation-Vase Series, 2006-ongoing, Soap, pigment, varnish, mirrored stainless steel plates, wooden crates, Dimensions variable

<트랜스레이션>시리즈의 많은 작품들은 중국 도자기를 비누로 재현한다. 원본을 본떠 만든 가짜 도자기들이 신미경의 원본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복제된 중국 도자기들은 소위 “중국풍”으로 인기를 끌며 16~20세기 초까지 서양으로 수출하기 위해 제작된 것들로 화려한 문양과 선명한 색채를 특징으로 한다. 상감기법으로 일일이 새기고 채색된 이 도자기들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은 어떨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이 도자기들을 영구히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중국 유물 혹은 자신의 문화를 대변하는 사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양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을 뿐이다. 신미경은 이 중국풍 도자기를 통해 문화의 이동 중 발생하는 번역과 해석의 다양한 시각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가치의 틀을 흔든다.

### 3. 전시 서문

#### 소멸가능한 진기 (珍奇): 중국인의 시선에서 바라 본 신미경의 작품

두안쥬 (Duan Jun, 段君)

한국과 중국은 지리상으로 매우 근접하여 예로부터 문화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수묵과 도자기 등의 예술 분야는 유사하게 발전한 부분이 많다. 중국인은 옛 의미가 새겨진 작품을 숭상하곤 하기에 신미경의 작품은 얼핏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예술 언어와 사용된 재료 속에 숨은 작품의 핵심은 관념적이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조각상과 도자기는 너무나 정교하기에 이 모든 작품들이 비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만약 관람객들이 작가가 만들어낸 조각의 모습이 화장실에서 끊임없이 만져지고 사용되어 변화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작품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불상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미경이 런던에서 진행했던 '화장실 프로젝트'는 지리적·문화적 감수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런던 사람들에게 불교의 조각상은 신성시함이 덜하고, 금기하는 부분도 많지 않다.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로 만든 동양의 불상과 서양의 고전 조각상은 이들에게 색다른 형태의 비누일 뿐, 손 씻기에 사용되는 일상용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손 씻기가 계속되면서 조각의 머리 부분은 평평해지고, 얼굴은 닳아 없어져 자연스럽게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주관은 조각의 외형을 결정짓는 것에 반해 신미경은 그 권리를 작품과 조우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작가는 변형된 결과물에 특정한 규칙을 정하거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작가들이 관람객 참여형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 말하는 '참여'가 제작 과정에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미경은 <화장실 프로젝트>에서 조각의 변형에 관련된 행위의 모든 권리를 관람객에게 넘겨주었다. 관람객은 '예술 창작'이라는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만지고 사용하면 되었다. 관람객의 사회적 속성이나 계층 간의 언어가 작품의 완성에 개입될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배제된 채 작품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이다.

비누 조각의 첫 출발은 작가가 처음 런던에 정착하던 시절 고전 조각상의 실물을 보고 느낀 바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중국 사람들도 이러한 작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사에서만 접하던 서양의 고전 조각상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심리적 반응들... 작가에게 고전 조각상은 단순히 역사적 예술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작품 창작의 촉매였다. 신미경이 고전 조각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상은 대리석과 재질이 유사한 비누, 생활용품으로서의 비누, 쉽게 여성작가를 연상시키는 재료로서의 비누, 단단한 대리석과 상반되는 소모품인 비누라는 고민을 하도록 이끌었다.

20세기 독일의 저명한 실존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품과 일용품의 차이란 일용품은 소모하기 위한 것이고, 예술품은 사용하더라도 절대 소모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신미경

은 비누 조각을 화장실에 비치하고, 편의시설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조각들이 미술관의 전시장으로 들어온 뒤에는 만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작가는 이것에 착안하여 “만약 예술품의 재질이 일상에서 소모되는 생활용품이라면, 이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소모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신미경의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에 그녀가 선택한 비누라는 재료를 걱정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작가라면 당연히 자신의 작품이 유방백세하기를 바라니 그들의 걱정은 납득할만하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이 소리 소문 없이 불멸의 존재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수명이 짧다 하더라도 좀 더 심화된 차원에서 관객들과 교감하며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작품으로서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마치 찰나의 시간에 사라지기는 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찬란한 불꽃놀이처럼 말이다. 왜 우리는 끈질기게 작품의 영원에 집착하는가? 불교나 동시대 미술은 모두 물질 형태의 영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예술이 세상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히 외형의 변화나 물질의 유동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 특히 파손되고, 결함이 있고, 노후되고, 병들은 모습과 같은 불완전한 상태를 애써 감출 필요는 없다.

신미경은 실수로 눌러진듯한 찌그러진 청동기도 제작했다. 중국 속담에 “모로 쳐도 바로 맞는다(歪打正着)”라는 말이 있다. 한 가마에서 구워낸 동일한 모양의 여러 도자기 중 착오가 발생하여 뜻밖에 좋은 도자기를 얻은 것처럼 작가는 ‘쓰러져가는 아이콘’을 만들었다. 신미경은 브론즈의 외형에 변화를 주면서 ‘쓰러져가는 아이콘’의 형태를 유지했다. 견고한 브론즈는 더 이상 굳게 설 수 없겠지만, 관람객은 이 작품을 통해 브론즈가 지니고 있는 재질의 특징과 브론즈의 상징 사이에 은유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쓰러져가는 아이콘’은 시간이나 권력 등 역사적·사회적 다양한 요인들이 사물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조각상이든 브론즈든 신미경의 작품들은 우리가 유물에서 보았던 완벽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예술형식의 파괴는 동시대 미술의 관행으로 깊게 자리 잡았다. 이것은 불공평하고 억압당하는 현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다. 비록 오늘의 작가들이 완벽한 고전적인 예술품 제작을 갈망할지도 모르겠으나 이들이 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전체론적이고 완벽한 세계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작업하는 많은 중국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신미경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민감하며 이와 관련된 의문들을 작업의 쟁점으로 삼는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적 경계들을 넘나들며 문화적 맥락에서의 갈등과 그에 동반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신미경의 작품세계는 더욱 풍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미경의 중국 전시가 이전의 전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가 중국 미술계에 새로운 정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바탕이 되길 바란다.

2015년 12월

## 4. 작가약력

### 신미경

- 1967 청주 출생
-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석사 졸업
- 1998 런던 슬라이드 스쿨 조소과 대학원 석사 졸업

현재 런던과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 주요 개인전 및 프로젝트

- 2015 진기한 장식장, 학교재상하이, 상하이  
페인팅 시리즈, 아시아하우스, 런던  
페인팅 시리즈, 하다 컨템포러리, 런던
- 2014 메이드 인 차이나 - 명 제국의 도자기, 브리스틀 시 박물관과 미술관, 브리스틀, 영국  
진기한 장식장, 국립 공예 & 디자인 센터, 슬리포드, 영국  
진기한 장식장, 벨톤하우스, 내셔널트러스트, 그랜덤, 영국  
화장실 프로젝트@스케치, 스케치, 런던
- 2013 트랜스레이션: 서사적 아카이브, 2013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언 픽스드, 주영국한국문화원, 런던  
비누로 쓰다: 좌대 프로젝트,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타이페이  
아키타입, 사마리아런 갤러리, 런던
- 2012 트랜스레이션의 사이, MOT/ARTS, 타이페이  
비누로 쓰다: 좌대 프로젝트, 카벤디쉬 광장, 런던
- 2011 트랜스레이션,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런던  
트랜스레이션, 아트 클럽1563, 서울  
트랜스레이션, 헨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 런던
- 2009 트랜스레이션, 국제갤러리, 서울  
트랜스레이션, 르페브레 플리 갤러리, 파리
- 2008 트랜스레이션,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07 트랜스레이션, 몽인아트센터, 서울  
트랜스레이션 - 달항아리, 한국실, 대영박물관, 런던
- 2004 퍼포먼스&전시, 대영박물관 그레이트 코트, 런던
- 2002 트랜스레이션, 도쿄 휴마니테 갤러리, 도쿄  
내일의 작가: 트랜스레이션, 성곡미술관, 서울

- 1995 껍질, 나무화랑, 서울  
1994 신미경 개인전, 서경 갤러리, 서울

### 주요 그룹전

- 2015 비는 그냥 오지 않는다, 킹스턴 컬리지 아트 & 디자인, 런던  
"좋은 하루 보내요, 미스터 김!", 미하엘-호르바흐 파운데이션, 쾰른, 독일  
실험실7, 달렘 박물관, 베를린  
어떻게 타임머신을 만드는가, MK갤러리, 밀턴 케인스, 영국  
프루덴셜 아이 어워즈,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싱가포르
- 2013 제작을 위하지 않은 미술, 사마리아런 갤러리, 런던  
글라스트레스 2013, 하얀 빛/하얀 열, 팔라초 카발리 프란체티; 베렝고 센터, 베니스, 이탈리아  
취향의 전달자, 단손 하우스, 켄트, 영국  
DNA, 대구 미술관, 대구
- 2012 제작된 오브제, 사마리아런 갤러리, 런던  
다시 주조된 신들, 사마리아런 갤러리, 런던  
코리안 아이, 사치 갤러리, 런던  
다양한 스펙트럼; 한국 도자 600년,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상파울루, 브라질  
시놉티콘: 현대 중국풍, 폴리머스 박물관과 미술관, 폴리머스, 영국  
물질과 에너지: 코리안 아이, 아트 디자인 박물관, 뉴욕; 페어몬트 바브 알 바흐르, 아부다비  
절차탁마, 인터알리아 갤러리, 서울  
세라믹 코뮌, 아트선재센터, 서울  
머티리얼 매터, 이스트 윙 엑스, 코톨드 인스티튜드, 런던  
세상만큼 작은, 나만큼 큰, 갤러리 현대, 서울
- 2011 물질과 에너지: 코리안 아이, 아트 디자인 박물관, 뉴욕  
나일론, 주영국한국문화원, 런던; 뉴욕한국문화원, 미국  
흙으로 쓴 시: 삼성미술관 리움 분청 사기,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미국  
예술을 입다, 플라토 삼성 미술관, 서울  
거북이 몰래 토끼야 놀자, 경기도미술관, 안산  
TRA: 생성의 끝, 팔라초 포투니, 베니스, 이탈리아  
융합, OCI 미술관, 서울  
미래의 기억을 쫓는 사람들, 가나아트센터, 서울  
38°N 남쪽의 눈: 한국 현대 미술, 갤러리 샬롯데 룬드, 스톡홀름
- 2010 미래의 기억들,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 사치 갤러리, 런던  
과거로부터의 선물, 주영국한국문화원, 런던  
소년 소녀 놀러 나오다, 로시 앤 로시 갤러리, 런던

-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연금사들, 에텔 아산티 프로젝트 스페이스, 런던
- 2009 신오감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8 제 3회 난징 트리엔날레: 사색하는 아시아, 난징박물관, 난징  
웰컴 홈 파티, 선 컨템퍼러리, 서울  
미술과 놀이, 한가람미술관, 서울  
내 마음의 보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서울  
아트 인 액션, Waterperry Gardens, 옥스포드셔, 영국  
성곡 내일의 작가, 성곡 미술관, 서울  
میم 트레이커들, 송장미술관, 베이징  
굿모닝, 미스터 백남준, 주영국한국문화원, 런던
- 2007 미, 욕망, 사라짐, 스페이스 다, 베이징  
소프트 파워,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힐, 서울; W호  
텔, 서울  
자유 분자들: 유럽의 젊은 한국 작가들, 시테대학, 파리
- 2006 거울 나라 엘리스: 한국 현대 미술, 아시아하우스, 런던  
부드러움, 소마미술관, 서울  
온, 커버 업, 런던  
분더캄머: 아티피셜 킹덤, 어셔 갤러리, 링컨, 영국
- 2005 투엔티 원: 청년학생작가전, 원 캐나다 스퀘어, 런던  
텔레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04 제 5회 광주 비엔날레 - 코리아 익스프레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재미있는 반복, 인사아트센터, 서울  
인터림 쇼 2004, 워번 스퀘어, 런던
- 2003 케미컬 아트, 갤러리 아트 사간, 서울
- 2002 작가들의 크리스마스, 갤러리 인, 서울  
11&11 - 한•일 현대미술 2002, 성곡 미술관, 서울
- 2001 연금술, 성곡 미술관, 서울  
단독 주택,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  
제5회 모란조각대상전, 모란미술관, 마석  
제5회 박영덕 화랑 신인작가 공모전, 박영덕 화랑, 서울  
외유 내강, 포스코 미술관, 서울
- 1999 세기말, 리버사이드 스튜디오 갤러리, 런던
- 1998 백년 간의 미술과 패션,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섬머 쇼, 슬라이드 스쿨, 런던
- 1997 재영 청년 작가전, 색빌 갤러리, 런던  
All Changes, 하베이 니콜스 백화점 쇼윈도우, 런던
- 1995 제2회 나무 아카데미 공모전, 나무화랑, 서울



- 1994 한국성, 그 변용과 가늠, 공평아트갤러리, 서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여성과 현실, 21세기 화랑, 서울  
1992 한국성, 그 변용과 가늠, 덕원갤러리, 서울  
1990 제 3의 공간, 제3갤러리, 서울

### 수상

- 2015 베스트 신진 조각가상, 프루덴셜 아이 어워즈, 싱가포르  
2013 올해의 작가상 201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성곡 '내일의 작가', 성곡미술관, 서울  
2001 제 5회 박영덕 화랑 신진작가 공모전, 박영덕 화랑, 서울  
1998 ACAVA 퍼스트 베이스 어워드, ACCBA, 런던  
1995 제 2회 나무 아카데미 공모전, 나무화랑, 서울  
1994 서울현대조각공모전, 서울 신문사, 서울  
1993 입선, 제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레지던시

- 2009 경기 창작센터 파일럿 프로그램, 안산  
2004 웨스트 딘 컬리지 거주작가 프로그램, 웨스트 서식스, 영국  
2002-03 쌈지 거주작가 프로그램, 쌈지 아트 스페이스, 서울

###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휴스턴미술관, 휴스턴, 미국  
브리스틀 시 박물관과 미술관, 브리스틀, 영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영국예술위원회, 런던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매일유업, 서울  
판화공방, 도쿄  
용산구청, 서울  
몽인아트센터, 서울

## 5. 화장실 프로젝트 참여 공간 정보

### 룽미술관 (Long Museum)



룽미술관은 중국 미술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금융재벌 류이첸(刘益谦), 왕웨이(王薇) 부부가 설립한 최대 규모의 사립미술관이다. 중국 전통미술과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 미술, 근현대 미술 작품들로 이루어진 부부의 개인 소장품들과 함께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인다. 상하이의 푸둥과 푸서에 각각 미술관을 운영 중이다.

2015년 11월 9일의 뉴욕 크리스티에서 이탈리아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1884-1920)의 회화 '누워있는 나부'를 1억 7400만 달러(약 1972억 원)에 낙찰받으며 화제가 되었다. 현재 푸서관에는 동경도 현대 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MOT)의 치프 큐레이터인 유코 하세가와(Yuko Hasegawa)가 기획한 전시 <Breaking through to the actual via the imagination>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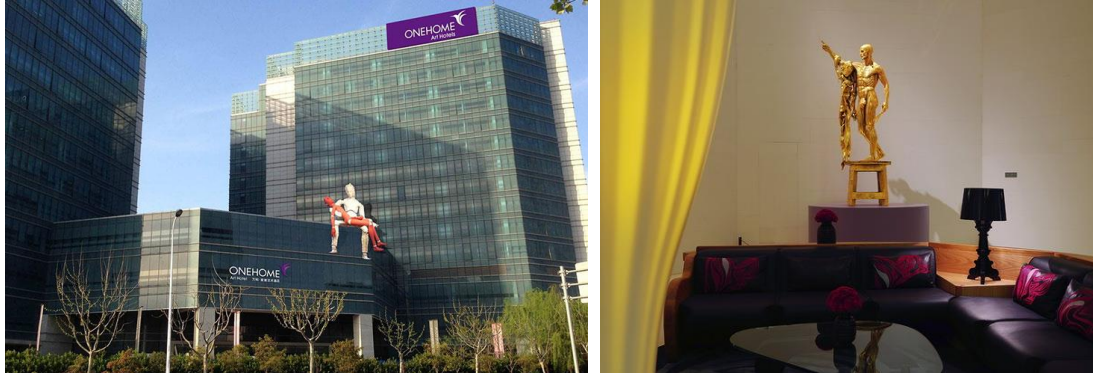
### 상하이 당대 예술관(MoCA Shanghai)



홍콩에서 보석 사업을 하는 컬렉터 부부에 의해 세워진 상하이의 첫 사립미술관으로 인민 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다. 현 대구미술관의 김선희 관장이 디렉터를 맡은 바 있기도 한 상하이 당대 예술관은 그 인연으로 대구미술관에서 2013년 진행했던 쿠사마 야요이 개인전을 상하이의 투어 전시로 연결하였다. 이 미술관에서만 3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쿠사마 야요이 개인전은 공식 집계된 입장료 수입이 1,500만 위엔(한화 약 27억 원)에 이르며 현대미술 전시 중 중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전시로 기록되었다.

현재 한국작가 강형구의 개인전을 하고 있다.

### 하오 아트 호텔 (HOW Art Hotel)



원저우 출신의 사업가이자 컬렉터 쩡하오(郑好)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아트호텔인 하오 아트호텔은 2015년 8월 8일 오픈하였다. 이 아트호텔에는 요셉 보이스, 데미안 허스트, 아이 웨이웨이,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하여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 장샤오강(张晓刚), 구원다(谷文达), 장환(张桓), 장은리(张恩里)와 함께 한국작가 이용백, 이세현, 전광영 등 120여 명 작가의 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트호텔의 넓은 정원 부지에는 하오 아트 미술관(HOW Art Museum)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관장은 2011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이자 2016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으로 선임된 윤재갑 디렉터가 맡고 있다.

### K11



홍콩의 쇼핑몰이자 아트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 K11에서 운영하는 상하이점으로 쇼핑몰 내 곳곳에는 데미안 허스트, 수이지엔궈(隋建国), 리우지엔화(刘建华), 한국작가 이이남 등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2층은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다.

2014년 진행한 모네(Claude Monet) 특별전은 상하이에서 열린 전시회 중 최다 관람객(40만 명 이상)을 기록, 상하이에서 블록버스터 전시의 가장 중요한 전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살바도르 달리의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 M50예술특구



포서(浦西)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쑤저우허(苏州河) 주변의 평범한 강기슭 마을이었던 모간산루는 1930년대부터 제분공장과 방직공장 단지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작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생적 예술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4년 상하이 시위원회가 이곳을 예술산업지구로 선정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하이 창작산업 단지 중 하나로 지정하여 특구의 형태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M50 창작원'으로 불린다.

현재 M50에는 대만, 홍콩,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스튜디오와 갤러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총 1만2000여 평의 M50에는 중국 현대미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New Wave Movement의 중심에 있는 딩이(丁乙)와 조티에하이(周铁海)의 작업실 등 약 200여 명이 작업실 60여 곳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학교재, 상아트(Shanghart)와 안테나스페이스(Antenna Space)를 비롯한 갤러리 50여 곳, 디자인 업체 20여 곳, 서비스업체 10여 곳이 영업활동 중이다.